

# 초보를 벗어난 나의 임플란트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장소 \_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유광사홀

▶ 등록안내

· 등록비

|                         | 사전 등록비 | 현장 등록비 |
|-------------------------|--------|--------|
| 치과의사                    | 3만원    | 5만원    |
| 군의원, 전공의, 공보의, 위생사, 스태프 | 1만원    | 2만원    |
| 학생                      | 무료     | 무료     |

\*주차권은 별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 사전등록 마감 : 5월 24일까지

· 입금계좌 :

외환은행 611-023132-871 신흥수

· 문의

02-856-5400 박민선 코디네이터

\*입금시 실명과 면허번호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예:홍길동12345)

▶ 연자



최병호 교수  
(원주 연세대)



이성복 교수  
(경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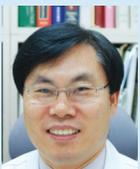
김용진 원장  
(일산 앞선치과)



이호재 원장  
(E-호재치과)



피성희 교수  
(원광대)



안장훈 교수  
(한림대)



이원섭 교수  
(가톨릭대)



이효정 교수  
(분당 서울대)

임플란트 치료는 소개되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치과의 기본 술식처럼 되었습니다. 특히 우수한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임플란트 기술 비율은 세계최고에 달하고, 그 수준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안전한 상황에서만 기술을 시도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간 기피했던 좀 더 어려운 상황들에 도전해보고도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 일 것입니다. 또한 임플란트 환자가 쌓이고 오래 볼수록 환자의 다양한 불만도 좀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원의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본 학술대회의 주제를 정하였고 좋은 강의를 해주실 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첨단 이슈 중 하나인 컴퓨터 가이드 플랩리스 서저리의 논쟁에 대하여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 엄선한 주제들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년 중 만물이 가장 싱그럽고 활기찬 계절에 본 학술대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임플란트 기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회장 성길현

▶ 강의시간

| 시간          | 연제   | 연자                           | 좌장     |
|-------------|--|------------------------------|--------|
| ~9:30       | 등록 (개회사)   | 성길현 (KAO회장)                  |        |
|             | <b>2014 KAO 끝장 대토론</b>   |                              | 안창영 원장 |
| 9:30-11:00  | 컴퓨터 가이드 플랩리스 수술 ?<br>이제 충분 vs 아직 무리?                                   | 최병호 교수 (연세대) VS 이성복 교수 (경희대) |        |
| 10:30-11:00 | 패널 토론  |                              |        |
| 11:00-11:30 | Coffee break   |                              |        |
|             | <b>나의 임플란트 술식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기</b>  |                              | 박영주 교수 |
| 11:30-12:00 | 개원의가 하는 손쉬운 치조골 증대용 mesh technique                                     | 김용진 원장 (일산앞선치과)              |        |
| 12:00-12:30 | 내 임플란트에 심미적 치주를 입히자(각화치은 잘 다루기)  | 이호재 원장 (E-호재치과)              |        |
| 12:30-13:30 | Lunch  |                              |        |
|             | <b>임플란트 식립시 애매한 문제 해결책</b>   |                              | 최영호 원장 |
| 13:30-14:00 | 인접치에 동요도가 있는데 그 옆에 임플란트를 심을까? 말까?                                      | 피성희 교수 (원광대)                 |        |
| 14:00-14:30 | 임플란트 시술시 많이 기어올린 인접치의 최신 해결법   | 안장훈 교수 (한림대)                 |        |
| 14:30-15:00 | Coffee break   |                              |        |
|             | <b>임플란트 환자가 하는 가장 흔한 불평 해결법</b>  |                              | 박재익 교수 |
| 15:00-15:30 | 임플란트하고 나서 음식물이 더 많이 낀다는 불평대처법 :<br>(contact를 조정하는 요령?) (스프린트인가? 싱글인가?) | 이원섭 교수 (가톨릭대)                |        |
| 15:30-16:00 | 지긋지긋한 임플란트 주위염 대처법 :<br>임플란트 주위에서 치실만 해도 냄새가 심하고 피가 난다면?               | 이효정 교수 (분당 서울대)              |        |

폐회 및 KAO 정기총회